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7월 24일 (제85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집중(集中)

우리 장로들과 골프를 치다가 어느 장로가 그만 오비를 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아 이고,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깐 잘못 쳤잖아 요?” 하고 옆 사람을 탓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에게 “이봐, 사람이 솔직해야지.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니깐 오비가 난 거 아냐?” 하고 말했더니 그가 겸연쩍었는지 피식 웃는다.

옆 사람 떠드는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게 왜 옆 사람 때문인가? 기도엔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일류기자는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사람이 붐비는 커피숍 안에서도 기사작성에 몰입한다. 일류선수는 관중의 환호나 야유에 흔들리지 않는다. 일류나 프로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그렇다. 목표가 확실하면 잡다한 소리는 안 들리게 되어 있다. 오직 그 목표만을 직시하는 눈만 있다. 내가 그랬다. 30여 년 동안 이 단이니, 귀신 쫓는 것을 짜고 한다는니 등등의 소리가 내 주위에서 왕왕 거렸다. 처음에는 그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귀를 닫았다.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옳은 일이기엔 뒤로 물러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것과 세계교구라는 목표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무 잡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손가.

집중은 모일 집(集), 가운데 중(中)으로 마음과 정신을 가운데로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일의 성패는 이 집중력에 달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의 위협이 문제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집중력은 성공과 정비례한다.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시장을 호령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여 그동안 기업의 주된 먹거리로 떠받들던 주력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여 회생을 꾀하기도 한다. 미래 전문가들은 조언하기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이대로 열심히 하면 계속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선택에서 성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가치 있는 사업에 도전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21세기를 주도할

대 오산이다. 신앙의 길도 동일하다. 한순간의 오판이나 나태함으로 한방에 흑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자를 때려잡으며 불레셋 군대를 나귀 탁뻘 하나로 몰살시키던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어찌하다 눈이 빠졌던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던 다윗이 어찌하다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던가? 전무후무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솔로몬이 어찌하다 우상에 둘러싸여 노년을 회한 속에 살게 되었던가? 모두 잘 나갈 때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었다. 가히 대적할 상대가 없던 삼

철하게, 혹독하게 풍년의 때를 관리하였다. 깊이 유념해서 묵상해야할 대목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며 누구나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리라. 그러나 정말 잘 생각하여 선택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내 인생의 보물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여 내 영혼의 때를 관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란다. 당장 내일부터 4주 동안 장성 예수중심 기도원에서 계속되는 전국연합수련회와

가자! 기도원으로

은혜 받자! 기도하자!

여보세요! Hello!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다

Lack of Prayer, Lack of Everything

C.S. Lee

7월 25일(월)~30일(토) 전국연합수련회, 8월 1일(월)~18일(목) 하계산상집회

4주 연속으로 장성예수중심기도원에서 열린다

것이라는 조언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다가올 대 흉년을 대비하여 철저히 꾸려나가는 그의 국가경영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지혜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겠으나 무엇보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극심하게 헤쳐 나온 빠져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다. 절대로 장밋빛 미래가 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요셉은 아주 혹독하게 경험했기에 말이다. 우리 기업들이 IMF체제를 극복하며 얻은 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IMF체제를 넘기며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기에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큰 타격 없이 버티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이 그러했다고 내일도 그러하리란 보장은 절

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고, 전쟁에 패할 줄 모르던 다윗은 밋세바의 미모에 한눈을 팔고 완전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게 했다.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는 우가 지나치게 논리를 따라가다 정작 참 진리를 경멸히 여기고 멀어지는 것이다. 잘 나갈 때, 편안하고 안일하다 할 때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S 그룹이 세계 글로벌기업으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그룹의 회장은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7년의 대풍년을 지날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적당히 쌓아두고 보너스 잔치를 벌이며 삼패인을 터뜨렸을 것이지만, 요셉은 아주 냉

하계산상집회는 내 영혼에 아주 귀중한 선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무참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 영혼의 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4주간 계속되는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의 영적 수련회는 반드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단열매를 따기 원하면 심어야 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8월 첫째 주 ~ 셋째 주 (8월 1일 월요일 ~ 8월 18일 목요일 저녁)
호텔예약 7월 25(월-첫째 주), 26(화-둘째 주), 27(수-셋째 주)
인터넷 예약(www.jcc.tv), 오전 10시 정각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8:9~12)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것이 정말 싫습니다. 돈이 없어서 울고불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도 그럴진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난에서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답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까지도 대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난합니까?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밭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이 이치요, 머리에 들어간 것이 많으면 나오는 것도 많은 것이 또 하나의 이치이며,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나는 것도 변개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능력이 커지고, 많이 저축할수록 목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심었다=열심히, 부지런히’로, 반대로 ‘적게 심었다=게으르고 나태하다’로 정리하면 왜 당신이 가난한지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를 증명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가난한 자는 사랑의 대상이나 가난은 경멸의 대상이다

이제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각각 주고 갔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계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한 달란트 그대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어 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각기 충성하는 깊은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지만, 경영학적 측면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부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신 말씀이며, 땅에 묻어 두지 말고 재테크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었습니다(창31:40). 또 요셉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절대 애굽을 그렇게 부국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식을 믿을 때이듯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난을 타파하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셨건만 여전히 가난의 굴레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니 타락했다느니 세속적이니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부자면 다야?’ 그럽니다. 아니, 그럼 가난해야 됩니까? 이것은 돈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못 풀어서 그런 겁니다. 칼 에도 양면이 있듯 돈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일반 악의 뿌리’라는 말씀을 곡해합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눅16)와 부자 청년의 비유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

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렀도다”(딤후6:10)는 말씀을 보면 ‘일반 악의 뿌리’ 전에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 다니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처럼 충성된 하인이 없습니다. 돈은 배신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제 가치만큼 충실히 봉사하는 하인이요, 충신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잠10:15).



총회장 이초석 목사

를 싫어합니다 (눅16).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험뎸고 배고픈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25:45)는 말씀에 기준해서 영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돈 많은 청년도 영생을 얻기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말씀을 받잡기 어려워 고민하다 돌아간 것입니다. 부자이기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이 돈에 집착해서 주님 말씀대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으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19:23~24)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돈을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마19:26)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들면 더 크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심어 얻은 네 소유로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에 눈 감으면 미래도 눈 감는다

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돈은 삶의 지렛대요, 징검다리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3,250번이나 나온 겁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을 무엇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학교나 경찰서도 돈이 있어야 지습니다. 제가 해외선교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자금을 들고 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왔겠습니까? 자기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이 남을 어찌 돕겠습니까? 자기 배도 못 채우는데 어떻게 남의 배에 신경 씩습니까? 자기 교회 꾸려가기도 벅차다면 구제를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찌합니까?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찌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잠19:7)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대통령을 한 번 만나려고 추진했지만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봐야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각국 정상들이 되레 만나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가난한 나라, 재난 당한 나라를 원조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썩은 생각을 잘라냅시다. 그 생각을 잘라내지 않으면 매일 그 밭에 그 반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청렴한 부자, 나눌 줄 아는 부자, 하늘나라에 심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셨습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한 사업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시다. 또한 복음을 위해 열심히 투자합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니깐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관계

사람의 성향을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받은 양 만큼 주는 사람. 이들 세 가지 성향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입학한 600명 신입생의 성향을 분석한 후 6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에게 먼저 베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됨으로써 필요할 때 더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 성공의 길에 먼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잘 듣고 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베푸는 삶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상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 이상의 동물은

칭찬을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자와 관계를 잘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를 특정 사안만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총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상대의 요청에 대해 적절히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분명한 거절을 못하는 것은 상대에게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여 오히려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피해야할 사람은 피해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유명 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떠벌리면서 매사를 관계로 해결하려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등은 피해야할 사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피할 사람은 피하더라도 인간관계는 궁극적으로 허망함과 불만족을 남겨줍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

1980년대 미국 피츠버그의 제철공장들은 외국산 수입 철강들로 인해 심한 불경기를 겪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 휴직을 당하고, 지역 교회도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

어느 주일, 한 교인이 커다란 모자에 5달러짜리 100장(500불)을 넣고 교인들에게 돌리며 필요한 분은 한 장씩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교회를 한 바퀴 돌아온 모자 속에는 1천 67달러가 남아 있었다. 기적이었다. 벧새다 광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장정만 오천 명이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이까지 계수하면 약 이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말씀 증거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허기짐을 생각하시고 어린 소년의 도시락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심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에 채우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러한 기적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내는 곳이 있다. 바로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이다. 우리 기도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음식과 숙소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목사님께서 쌀 창고와 부식 창고에 쌀과 부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명령하고 축복하시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무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적의 동산에서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3주간의 산상집회가 열린다. 열일을 제쳐놓고 그 동산에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From Internet ::

:: 귀를 기울이세요 ::

진정한 우정

조선시대 광해군 때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광해군은 허락하지 않았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광해군이 고심하고 있을 때 나성룡의 친구 이대로가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다. 그의 말에 왕은 고민하며 “대로야! 만일 나성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자 이대로는 “성룡이는 제 친구입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광해군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대로의 말에 탄복하여 이를 허락했고, 이대로는 나성룡을 대신해 감옥에 갇혔다.

드디어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다. 그러나 나성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대로는 교수대로 끌려 나왔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주위에서 우정을 저버린 나성룡을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이대로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다. “나의 친구 나성룡을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마침내 사형 집행을 하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말을 재촉하며 고함을 쳤다. 나성룡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다.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겨

우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를 풀어 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다. 나성룡이 말했다.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이대로와 나성룡은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교수형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고,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찰나 광해군은 사형집행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광해군은 두 사람 앞으로 걸어내려와 말했다. “부럽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 두 사람 사이의 그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구나.”

그리고 말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라. 저 두 사람을 모두 방면토록 하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사형집행장에 모였던 원로대신들과 조선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방면을 기뻐했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15:13).

예수쟁이 지저스웨거

요즘 방송가와 음원시장에서는 한 지저스웨거(Jesuswagger: 기독교인이며 랩하는 사람)의 반응이 뜨겁다. 원래 실력 있는 랩퍼여서 힙합 쪽에서는 팬층이 두터웠지만 그의 신앙과 기독교 랩가사가 ‘쇼미더머니5’라는 힙합경연프로그램에서 매번 소개되면서 날이 갈수록 비기독교인 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 신문사 종교국에서는 연일 그의 신앙 관련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는 93년생 올해 24살의 Bewhy(비와이)라는 청년이다.

원래 힙합이라는 세계의 음악을 들어보면 돈, 여자, 욕설, 폭력, 비방(디스)이 난무하다. 그래서 힙합곡이 방송에 소개되면 비방송용이기에 빼~쳐리가 많다. 그런데 비와이의 곡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의 곡의 가사들은 신앙 생활의 일부를 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등장한다. 최근 음원 시장을 강타한 ‘Day Day’의 가사는 이렇다.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작품의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symphony,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처음 이 곡의 가사를 보았을 때 어느 찬송가의 한 부분 같았다. 또 다른 곡들을 살펴보면 ‘다른 달콤한 우상들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말아’, ‘돈과 힘, 명예를 다 얻어도 내 무덤 앞에 성경구절(요3:16)을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이다. 아예 어떤 곡의 제목은 ‘SHALOM(shalom)’인데, 비와이는 노래에 본인의 기독교 가치관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다.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일생일대의 설교라 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랑한다’라는 내용의 춘계산상집회 설교를 보여주셨다. 랩퍼 ‘비와이’는 자신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높이고 본인의 신앙고백을 솔직하게 노래가사에 담아냈더니 그의 명성은 더 없이 높아졌다. 심지어 그의 노래를 들은 비기독교인들은 노래를 듣다 은혜로워 교회에 가고 싶거나 기독교를 달리 보게 됐다는 등 찬사가 쏟아졌다.

비와이는 경연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예수쟁이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무대를 마치고 무릎기도까지 하고 나온다. 그는 또 하나님의 문화를 가장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지금도 맹렬히 연습중이다.

하나님을 만인 앞에 자랑하는 비와이! 그를 하나님이 어찌 높이시지 않겠는가?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지난 6월은 나에게 안팎으로 바람이 잘 날
없는 폭풍의 시간이었다.
엄마와 함께 일구는 사업장이 있다. 나를
가업을 이어 받은 것으로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 기업이다. 그런데 잘못 들인
직원 하나가 나쁜 마음을 품고 스스로 퇴
사를 하면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
폭풍의 발단이었다. 그 결과, 10여 년 만
에 처음으로 교육청 지도 감사를 받게 되
었다. 과도한 벌점과 과태료, 학원 내부 시
설 재공사 등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시정 명령에 막막할
겨를도 없이 수습해야 할 것은 당장 시험
대비를 앞둔 상황에서 비어있는 영어강사
자리였다.
억울함을 토로할 여유도 없었다. 눈앞에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
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하며 교육청에 찾아갔더니 벌점과 과태료
를 낮출 수 있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
겼다.
그 다음 문제는 아이들을 지도해줄 선생
님을 구하는 것. 기도 가운데에 등잔 밑을 살
펴보라는 응답을 받았다. 급하게 교내 사
이트에 구인광고를 냈더니 우수한 실력의
강사들이 줄줄이 연락이 왔다. 부랴부랴
강사를 메우고 돌아보니 휴일 없이 돌아
가는 학원의 내부 공사가 남았다. 교육청
과 강사모집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나는
더 이상의 여력이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우리 사업장의 대표이자 정신적, 영
적 지주인 엄마가 나섰다. 극적으로 내부
공사 일정이 잡히고, 3일에 해야 할 공사
를 수완 좋은 사장님이 최대의 인부를 불
러 모아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보름

도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일이 일단락되
었다.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조
건과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라 감사할 뿐이다.
한편, 지난달에 나는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긴 병
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이에 더해진 가족들의 기도가
빠른 회복을 가져다주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다. 나에
게 주신 사업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한 이 역경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동력임
을. 그리고 ‘어려울 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라’, ‘사나운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는 목사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중들 속
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
여 돈과 명예를 취해보고 술과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의 즐거움
뿐, 마시고 마셔도 목마름의 갈증은 해
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일천 철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 만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전도서에는 펼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도다.”라는 탄식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그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다가
말미에 결론적으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
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다섯 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는 결혼
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
음은 여전히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혹시나’ 하는 호기

심에서 출발하여 ‘역시나’ 하는 실망감
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위
하여 쫓아가는 모든 것들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고 물거품과 같
은 가짜 소망들이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느
끼지 못한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
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Global Study ::

❖ 첫 인상은 평생 상대 속에 남는 그림이다.

Your first impression remains in the others hearts for a lifetime.

第一印象的画面一生留在对方的脑海里。

❖ 표정 관리, 언어 관리가 성공의 첫 스펙이다.

You should know that managing your facial expressions
and words are the way to success.

表情管理,言语管理,是成功的第一资历。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나의 두뇌 체질은 무엇일까?

인간과 동물에 차이가 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뇌다. 인간의 뇌
는 무게가 1.3kg밖에 되지 않지만, 동
물과 비교하여 고도로 발달된 기능을
하고 있다. 뇌 안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소통하는데, 이러한 뇌 화학물
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건강
한 뇌로서 기능을 하게 되나 뇌 화학물
질이 과도하게 많거나 결핍되어 있다
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신체적으
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뇌 화학물질은 개인의 성격하고도 관
련이 깊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
닌이 있다. 이들 중 우세한 종류에 따
라 4가지 체질, 즉, 도파민 체질, 아세
틸콜린 체질, 가바 체질, 세로토닌 체
질로 나뉜다.
첫째, 도파민 체질은 이론적이고 장기
계획에 능한 이성주의자다. 좌우명은

‘절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다. 도파민은 뇌를 깨워주는 각성 작
용을 한다. 삶에 의욕을 주고 흥분을
시켜주며, 혈압, 소화 및 운동, 계획,
목표설정과 관련이 깊고, 균형이 깨지
면 중독, 비만, 만성 피로, 파킨슨병들
이 생긴다.
두 번째, 아세틸콜린 체질은 진실하고
자상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
려고 애쓴다. 좌우명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이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처리
속도를 주관한다. 균형이 깨지면 언어
장애, 기억력 감퇴, 학습장애, 알츠하
이머병까지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가바 체질은 관계가 중요하
다. 조직과 전통의 지배를 중요하게 생
각하며, ‘감시자’의 특징을 보인다. 좌
우명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이
다. 가바는 뇌의 천연 신경안정제이
며, 몸과 마음, 정신을 차분하게 해준

다. 균형이 깨지면 두통, 고혈압, 심장
두근거림, 발작, 심장장애와 같은 증상
이 나타난다.
네 번째, 세로토닌 체질은 욕구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모험과 경험을 중요
시하며, 좌우명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
을 산다’이다. 세로토닌은 몸의 치유,
보살핌, 만족을 주며, 건강하면 숙면
을 취하고, 잘 먹고, 이성적으로 생각
이 된다.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 호르
몬 불균형, 생리전증후군, 식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나의 뇌 체질이 무엇인지 알고, 내 체
질과 타인의 체질을 알고 서로 이해하
고 보완해준다면, 감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
다. 모두가 건강하길 소망한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영혼의 상비약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
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
의 근원지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
해하는 돌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역시 역경과 고난이
라는 돌이 없었다면 과연 아름답게 다들
어진 영혼과 균형 잡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자답해 봅니다. 그 질
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No’입니다. 내면
의 깊은 속에서 회열에 찬 최고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눈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가
장 깊은 고난의 늪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금 같은
믿음은 오직 고난의 풀무 속에서만 만들
어집니다. 그래서인가요? 시편기자는 이
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

흑인으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벨슨
만텔라는 백인정부에 의해 26년간을 옥
살이했습니다. 그가 출옥할 때 그의 측근
들은 아주 병약한 모습으로 나약해져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70세가 넘는 만텔라
는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
습니다. 5년만 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
어 초췌한데 어떻게 26년간 옥살이를 하
면서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냐는 질문
에 그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
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만텔라는 노벨 평화
상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
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드러지는 감사와
찬양은 ‘내 영혼의 상비약’입니다. 그러므
로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살전5:18).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